

[Q&A]

Q1. 수능 생명과학에서 1등급 이상의 고득점을 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는?

A1 한 사람의 혈액 0.15mL가 생성되는 시간 90초.

지구에서 새로운 적혈구 127경개가 생성되는 시간 90초.

수능 과탐 1문제를 평균적으로 풀어야 하는 시간 90초

90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자는 생명과학1을 비롯한 수능 과탐에서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험 운용 전략'과 '학습'이 본질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때 '학습'이라 함은, 기본 개념 & 실전 개념 & 미출제 Point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부를 바탕으로 기억 세포를 형성하고 (학)

수능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발현시킬 수 있도록, 기억 세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반복하고 체화하는 것 (습)

으로 앞으로 함께할 수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수업 내에서는

교재 1권 당 핵심 & 기본 개념(문항)이 Two Track으로 구성되며
기본 문항은 빠르고 간결하게, 선지 vs 자료의 시작점 판단이 필연적
핵심 문항은 논리적인 시작점, 사고의 흐름, 논리 vs 직관의 판단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 문항은 분명 각각 최적의 루트가 존재하며
공부할 때는 실전에서 논리와 직관을 적절히 혼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를 점검하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항에서 실력을 오롯이 발휘하기 위해
기본 문항의 Shortcut이 필연적입니다. 개념 시즌부터 제대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요약]

기본 개념의 인지, 실전 개념(실제 출제되는 개념)의 인지 및 체화

수능장에서 발현시킬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억 세포 형성

28분간 20문항을 운용할 전략 확립

수능 날까지 기억 세포 유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Q2. 수능 이후 생명과학1 공부를 아예 쉬었는데 다시 기초 개념부터 해야하는지

A2 기초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만큼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아도 좋으나

처음 공부했을 때 제대로 공부했을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1) 개념적으로 구멍난 부분이나 2) 바르게 공부하지 못한 부분,
3) 다시 볼 때 제대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절대로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의 예시 : 항상성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2)의 예시 : <보기>부터 시작할 유형과 <자료>부터 시작할 유형을 구분하자.

3)의 예시 : 체온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The All

다만 기초 개념만 공부하면 집중력 저하 및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
다시 공부한다면 더더욱 기초 개념, 실전 개념, 실전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감각 유지에 좋아보입니다.

“기초 개념”이라고 표현된 것만큼 “실전 개념”에 비해 양은 적지만
14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어찌면 핵심 문항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비유전과 유전을 각각 다른 과목이라고 여기고

비유전은 개념 반복과 숙련을 통해 충분히 기계화시켜

유전에 충분히 할애할 시간을 확보하는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기초 개념을 제대로 닦아 기본 문항을 간결하고 적확히 풀어내

핵심 문항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닦도록 합니다.

Q3. 킬러 문제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3 구체적인 접근법은 유형별로 다르지만 생명과학1 핵심 유형에서는 시작점 잡는 연습을 매우매우 많이 하는 것이 맞으며 생명과학1은 특히 시작점을 체계화시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기본 개념, 실전 개념의 숙지를 전제로 신유형을 관통하는 자료를 보는 안목을 많이 접하고 훈련해야 하며 킬러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기본 유형에 대한 시험 전략 확립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봅시다.

○ 표는 P의 세포 I~III과 Q의 세포 IV~VI 각각에 들어 있는 A, a, B, b, D,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사람	세포	DNA 상대량					
		A	a	B	b	D	d
P	I	0	1	?	㉡	0	㉢
	II	㉠	㉢	㉠	?	㉠	?
	III	?	㉢	0	㉡	㉡	㉢
Q	IV	㉡	?	?	2	㉡	㉡
	V	㉢	㉡	0	㉠	㉡	?
	VI	㉠	?	?	㉠	㉢	㉠

22학년도 수능

㉠~㉣은 0,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구성원	대립유전자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
	a	b	c	d	
아버지	○	○	×	○	㉠
어머니	○	○	○	○	㉢
자녀 1	?	×	×	○	㉡
자녀 2	○	○	?	×	㉡
자녀 3	○	?	○	×	㉢

(○: 있음, ×: 없음)

○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가 형성되었다. P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자녀 3이 태어났다.

23학년도 수능

두 문항 모두 난이도가 높게 책정된 수능 돌연변이 문항이며 돌연변이 자체에 대한 개념을 심층적으로 묻기보다는

22학년도 수능 문항에서는 세포 V에서

23학년도 수능 문항에서는 구성원 어머니에서

시작 Point가 원 문자(미매칭 정보)가 모두 있는 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유사하게 활용됩니다.

최근 경향의 수능 생명과학 시험지에서는 자료 해석의 시작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핵심 문항에 적용되는 개념 자체는 기본 개념의 영역으로 두고 여러 유형에서 나타나는 자료 해석에 대한 내용 또한 체계화시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 해석에 대한 명제에 대해 기억 세포를 형성해두고 수능 OR 내신 시험 날에 사라지지 않고 발현시킬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명제를 접하는 것은 기본 명제의 반복 훈련 및 발현 감각 유지가 필연적이라 여겨집니다.

Q4. 인강을 듣고 이런 저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별로 실력이 늘거나 얻어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A4 인강을 촬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라면 개념 자체의 제시는 훌륭하실 것 결국 내신/수능 시험 시간에 발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이 필수적이나 적용 연습 과정(체화)을 돕는 커리큘럼이 함께 있는 강사를 택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생명과학을 대비한다면 커리큘럼 자체에 자료 해석을 대비해주는 시간이 있고 자료 해석이 실전적이라고 여겨지는 강사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

목적과 방향성을 적절히 설정하고
수능 생명과학 학습에 임하도록 합시다.

생명과학 I 실전개념 디올

- : 16주 만점 완성 (~4월 전단원 만점 완성)
- : 실전 개념과 훈련의 A to Z
- : 기본 개념부터 미출제 Point까지
- : 생명과학 I의 경향, 적용, 체화의 모든 것
- : 목적성의 명확한 제시, 학습의 정도
- : 0주차 강의 무료, 수능 생명과학 I의 본질과 공부 방향성, 태도 정립

[생 I 디올 세부 구성 & 주간 자료]



수능 생명과학 I 대비를 위해 강사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출제 Point, 미출제 Point를 모두 가르치고 (學)

부단한 태도 교정의 반복을 통해 체화의 영역에 이르게 하는 것 (習)

강사의 역할, 그리고 책임감에 집중하여
만점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